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5호 현대불교
2010년 3월 17일(음 2월 2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이 세상만사 돌아가는 게 다 꿈으로 돌아가느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말할 때 그 '마음'과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참나'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워낙 미묘한 표현인지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음을 말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 마음의 정체를 꼭 집어내듯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마음이라는 것은 한 물체가 이렇게 (물컵을 가리키시면서) 가만히 있는 거고, 물체가 움직여가는 것은 공(空)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인(主人)은 마음이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공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이름이죠. 이렇게 그냥 썼을 뿐이고 (숫자가락을 세워 들어 보시며) 이게 돌아갔을 때는 (숫자가락을 돌려 보시며) 바로 공이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능력을 말하고, 그 능력을 배출함에 있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를 공이다 했으니까, 마음과 공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라든 공은 바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과 돌아가는 것을 그냥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 보지 마십시오.

질문자1(남):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들었을 때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이란 망상의 일종일 터인데, 그렇다면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잠자는 동안 번뇌 망상을 쉬고 순수한 마음자리에 드는 것이지요?

큰스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꿔는데 소쿠리를 하나 주었다고 어느 노승한테 말했습시다. 그러니까 "어휴, 너는 초대를 받아서 오늘 음식을 잘 먹겠다." 했습시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찌하게, 또 판 짚은이가 꿈도 꾸지 않았으면서 "내가 또 소쿠리를 하나 얻었다고 해 보자, 어떻게 나오나?" 그러고는 "저도 잊고저게 친구가 꿈꾼 것처럼 꿈속에서 소쿠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휴, 너는 오늘 저녁에 매를 죽도록 맞겠구나" 이랬습시다. (대중 웃음) 그러니까 아, 그날 저녁에 정말 친구들하고 놀러갔다가 그냥 매를 직사하게 맞았습시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 분해서 죽겠거든요. 꿈도 안 꿔는데 왜 이렇게 맞느냐 이거죠, 이제.

그러고는 가서 항의를 했죠. "나는 꿈도 안 꾸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까?" "야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게 꿈이냐. 생시나 꿈이나 다 꿈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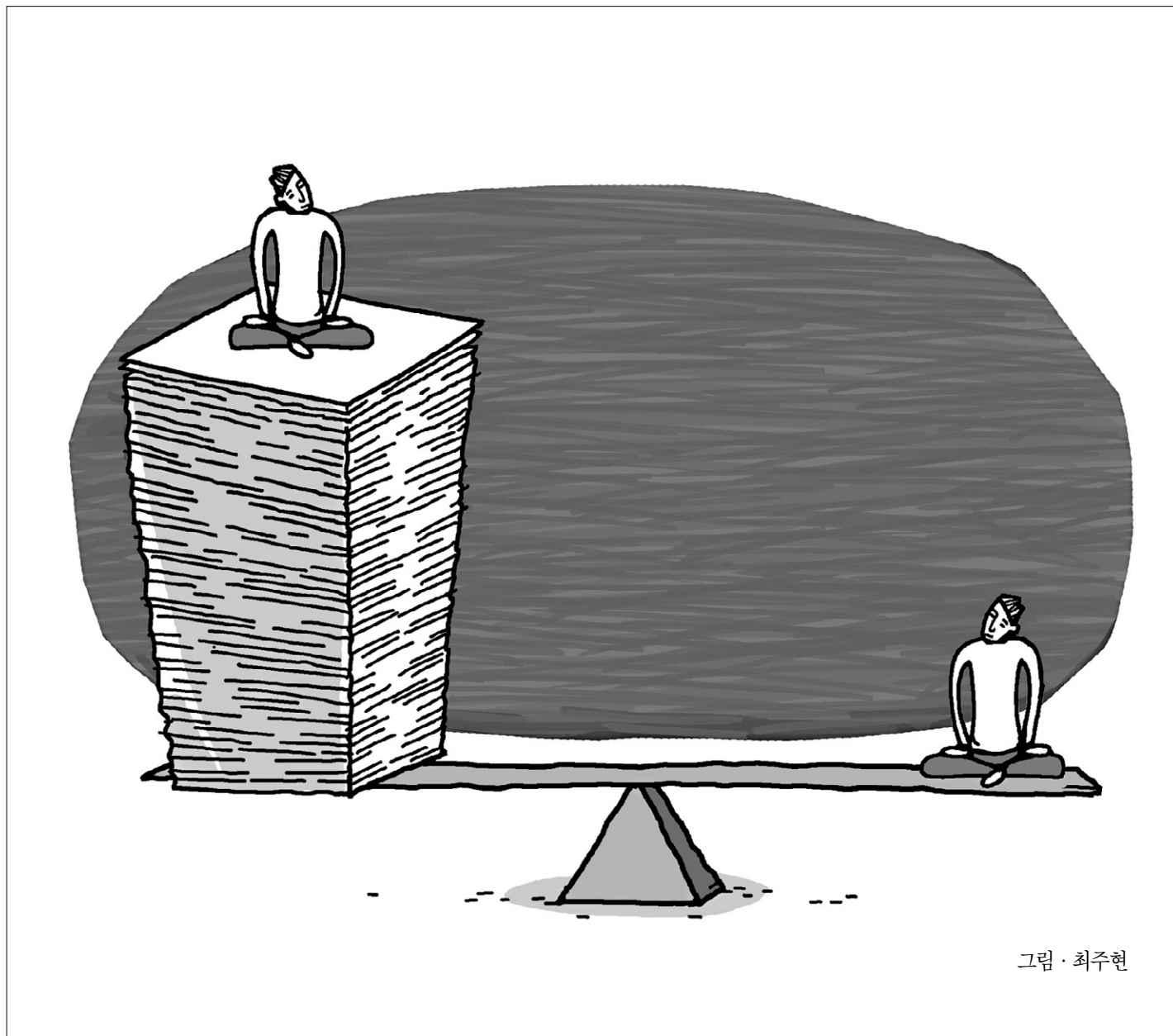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생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꿈이니까 꿈을 잘 꿔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어찌하게 꿈을 꾸면 어떡하느냐? 하하하... 그리고 밤중에 자다가 꿈을 꾸는 것도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잘 굴리면 아주 흥감하는 수가 있을 텐데, 아주 이걸 나쁜 꿈이라고 지적을 해 놓기 때문에 나쁘게 돌아가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게 다 꿈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 자도 꿈이요, 생시도 꿈이요, 모두가 꿈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러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허허허...

질문자1(남):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찬불가를 선법가로 하라고 하셨습시다. 그런데 막상 노래를 할 때면 부처님을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을 생각하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 밖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과연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큰스님: 아니, 손을 폼다 오그리고 오그렸다가 폼 줄 알아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본래 부처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처 생각이 안 나왔습니까? 하하하... 그러니 모두 저 형상을 부처로 보지 마시고, 그때 그 시절에 난 분도 바로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랑 얘기죠. 그러니 바뀌어서 돌아갈 때에 이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여러분이 부처요, 여러분이 증생이요, 여러분이 지금 그 굴리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때에 따라서 부처도 생

각나고, 조상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아내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고 그냥 시시때때로 바뀌 가면서 생각이 나지 어찌 생각이 안 나왔습니까? 그 한군데서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음 속에서,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는 하지 않은 생각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보고 듣는 대로 생각이 바뀌지는 겁니다. 바뀌지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한군데서 나오니까, 그것도 부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 개의치 마십시오.

질문자1(남):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그동안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마음 법제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집에서 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도 이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답을 큰스님께서 다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경계에 걸렸다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시다. 그동안 유교식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는 지내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절을 두 번을 해야 하는 건지, 유교식으로요, 아니면 세 번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세 번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을 해도 한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에서 결립은 없는데, 혹시 방법론에 있어서 절을 세 번을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한 번만 해도 되는지,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올립니다.

큰스님: 그것도 때와 환경에 따라서 절도 해야 하겠죠. 아주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하겠다 할 때는, 삼 배를 일 배로 올리고 가셔도 되고요, 또 빨리 안 나가도 되겠다 할 때 그냥 삼 배를 올리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질문자1(남): 거기에 결립 없이...

큰스님: 결립하지 마세요.

질문자1(남): 예, 알겠습니다.

큰스님: 마음이 중요하지 이 몸체를 움직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몸체가 움직여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몸체가 움직여가게 되니까요. 도독질을 하러 가자 그러면 도독질을 하게 되고, 남한테 좋은 일을 하겠다 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육체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단 겁니다. 그러니까 몸체를 놀리는 것은 걱정 마시고요, 바쁘면 바쁘게 하시고 또 바쁘지

▶▶▶ 26면으로 계속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